

석사학위논문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 비교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최영식

2006년 12월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 비교연구

지도교수 이선희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최영식

최영식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_____ 인

부심위원 _____ 인

부심위원 _____ 인

2006년 12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동기와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칼빈의 믿음개념과 구원개념	4
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믿음개념	4
1) 지식으로서의 믿음	4
(1) 지식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정의	4
(2) 믿음에 확신	6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믿음의 지식	9
3)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침	11
2. 믿음에 의한 구원	13
1) 믿음에 의한 칭의	13
2) 믿음에 의한 성화(I): 회개	15
3) 믿음에 의한 성화(II): (자기부정)	17
III. 웨슬리의 믿음개념과 구원개념	22
1. 웨슬리의 구원개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	22
1) 구원의 방법	22
2)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23
2.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	25
1) 선행하시는 은혜	25
2) 회개시키시는 은혜	27
3) 믿음에 의한 칭의	28
4) 믿음에 의한 신생	30
5) 믿음에 의한 성화	32
6)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35

IV.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 비교	38
1. 믿음개념의 비교	38
1) 믿음의 정의 비교	38
2) 믿음의 근원 비교	39
2.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기능에 대한 이해 비교	40
1) 회개에 나타나는 믿음개념 비교	40
2) 칭의에 나타나는 믿음개념 비교	41
3) 성화에 나타나는 믿음개념 비교	42
V. 결론	44
참고문헌	46

I.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핵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칭의 받고 중생하며 성화된다고 칼빈과 웨슬리는 가르쳤다. 그 만큼 믿음은 중요하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자와 불신자로 나뉜다. 그래서 믿음개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개신교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절감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지적동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외적인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행을 하기 위한 사회봉사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부부생활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칼빈과 웨슬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그 열매로서 당연히 나오는 결과라 하였는데, 무조건 믿음이 있다고 전제하고 행위는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려는 실정이다. 물론 사람에게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개신교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암암리에 로마 가톨릭교회식의 구원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필자는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했던 믿음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믿음은 무엇인지 밝히고 바른 믿음개념을 정립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은 과연 무엇인지 연구하여 체계화한다.

둘째, 칼빈과 웨슬리가 중요시 여겼던 믿음에 의한 칭의 및 중생의 진리를 탐구하여 이 구원개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셋째,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한 믿음개념을 비교하여 그들이 추구했던 믿음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에 대해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믿음개념과 구원에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려고 한다.

먼저 칼빈의 믿음개념 및 구원받는 믿음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주로 「기독교 강요(중)」¹⁾ 중심으로 그가 쓴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칼빈 관련 자료를 참고하려고 한다. 가급적 칼빈 자신이 주장한 믿음 개념을 밝히 드러내려고 한다.

웨슬리의 경우는 「존 웨슬리의 설교선집(I)」²⁾을 주 텍스트로 하여 믿음의 개념과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또 웨슬리에 대해서 오해하여 잘못된 해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텍스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비교에 있어서는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 및 믿음에 의한 회개, 믿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원광연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2)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성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여서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같음을 증명하려 한다.

II. 칼빈의 믿음개념과 구원개념

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믿음개념

칼빈에 있어서 믿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개념 하에 칼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믿음의 지식, 셋째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침이다. 이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믿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려 한다.

1) 지식으로서의 믿음

(1) 지식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정의

칼빈은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라고 했다.³⁾ 이것은 인간의 정신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해의 차원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칼빈은 믿음의 지식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⁴⁾

3)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7.

이런 칼빈의 주장을 오해하여 믿음의 지식은 그것의 인지적 성격에 관한 다른 지식과 다르지 않고, 이 믿음의 지식을 다른 지식보다 더 확실한 지식으로 여긴다⁵⁾는 것은 잘못된 연구결과이다. 왜냐하면, 인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지식과 달리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이해의 차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성향을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다.

칼빈은 확신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토록 두드러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 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⁶⁾

칼빈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확신을 얻게 되면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생명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⁷⁾ 확신이 곧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확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반면에 칼빈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늘 의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며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겨난다고 했다. 즉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자

4) Ibid., 39.

5) 이승구, “칼빈의 신앙 이해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학연구」 7집 (2000), 109.

6)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39.

7) 존 칼빈, 「기독교 강요(초판)」, 양낙홍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69.

비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⁸⁾ 근본적인 믿음이 결여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확신이나 담대함 또한 결과로서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칼빈은 믿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이 원인이 되어 맺는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 믿음의 확신

칼빈은 이런 믿음이 원인이 된 확신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조금의 요동함 없는 완벽한 확신은 아니다.

즉 칼빈은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 점도 의심이 없는 확실함이라든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즉 양심의 일말의 동요도 없이 완전한 평안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⁹⁾ 바로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흔들리고 떨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이다.¹⁰⁾

그러나 칼빈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특정한 확신에서 벗어나든지 떠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¹¹⁾ 즉 믿음의 확신이 소멸되거나 하나님을 떠나

8)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40.

9) Ibid., 42.

10) 이승구, “칼빈의 신앙 이해에 대한 한 연구,” 105.

11)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42.

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믿는 자에게 닥치는 시험이 무겁게 짓눌러 거의 깨어질 상황에 이르러서도 일순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했으며 물론 거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마음 자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시 119:43)라고 기도한다고 하였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마치 그 믿음이 지쳐서 넘어져 버린 것처럼 때때로 무디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싸우며 인내하며, 또한 최소한 스스로 방종에 빠져 마비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에 채찍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칼빈은 인간의 육체와 영의 문제를 다뤘다. 칼빈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 후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본다. 그는 이 문제를 영과 육체의 개념으로 다뤘는데 고난 속에서 인간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자비하심을 신뢰하지만, 육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고 믿음에 완전무결하게 사로잡히는 그 정도까지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솟아 올라와서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하므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¹²⁾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44.

그러므로 칼빈은 이러한 공격들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방벽을 쌓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 그는 우리의 원수라고 주장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고, 또한 그의 채찍은 진노보다는 오히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의를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믿음은 이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이 그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면 언제라도 모든 불의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마음을 시험하고 지치게 만드는 온갖 공격들이 오히려 이러한 확신을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¹³⁾ 즉 믿음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 결과로서 확신에 차게 된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신자들은 환란 속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확신이 들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계책들이 아무리 크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지는 못하며, 그리하여 결국 내쫓기고 만다고 했다.

즉 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 할 수 있는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이런 환란 속에서도 두려움

13) Ibid., 46-47.

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을 위해 친히 보살피신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 즉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다.”¹⁴⁾

즉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현재의 삶과 장차 올 삶에 대하여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요(딤후4:8), 또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든든한 확신임을 알 수 있다..¹⁵⁾

칼빈은 신자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증명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단오하게 정의를 내렸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란이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믿음의 지식

칼빈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는다.” 바로 믿음은 약속과 함께 시작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끝을 맺는다. 오직 긍휼하심에 대한 약속, 오직 값없이 주어진 약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구원의 약속으로 그 믿음을 받쳐 주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보다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아시고 기꺼이 값없이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¹⁶⁾

하지만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공적을 쌓았어도 그 공적이 우리밖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14) Ibid., 48.

15) Ibid., 57.

16) Ibid., 58-59.

다.¹⁷⁾ 바로 믿음이란 그 약속의 복음을 깨닫고 알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며 이것이 실현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됨을 칼빈은 말한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했다. 이런 분이시기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가능성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루셨다. 따라서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 사건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하심을 증거 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맛보게 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¹⁹⁾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그러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이 약속은 어디까지 한정지어야 할지 애매하기도 하다. 칼빈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의 사랑을 증거 해 주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들 수 있다. 칼빈은 또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 받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²¹⁾

17) 이양호, “칼빈, 성경과 하나님나라,” 「강근환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한들, 2000), 267.

18)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61.

19) 존 칼빈, 「기독교 강요(초판)」, 75.

20)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62.

즉 칼빈은 믿음의 밑바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바로 값없이 주신 믿음이 구원의 선물의 기초인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침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현실에서, 롬바르트나 아퀴나스가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건에 대한 감각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즉 지적인 동의의 필요성만을 요구했을 뿐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조리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외형적인 증거만으로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화되고 뒷받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²³⁾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이 성령도 그러하시다(고전 2:10-11).²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며(롬8:9, 고전 3:16과 고후 6:16),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기에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후 13:14, 마28:19).²⁵⁾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고전 2:16)을 깨

21) Ibid., 64.

22) Ibid., 27-28.

23) Ibid., 66.

24)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5), 68.

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²⁵⁾

그래서 칼빈은 성령이 하시는 내적사역인 조명하심과 인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의 빛의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진정으로 맛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중에(눅24:45)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눅24:45)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다.²⁷⁾

따라서, 성령님이 교사로서 인간에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구원의 약속)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먼눈을 열어 성경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분명한 증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²⁸⁾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만이 머리뿐만 알았던 말씀이 내면에서부터 깨닫게 되어진다.

둘째로, 성령의 인침이란 마음이 강화 되고 뒷받침을 받는 역사이다. 지성으로 진정 이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음으로 확증하는데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불신이 지성의 어두움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도장의 기능을 발휘하셔서 이미 지성으로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그 약속들을 마음속에 인쳐 주시며, 또한 그가

25) 신내리,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서울: 성광문화사, 1987), 405.

26)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68.

27) Ibid., 68.

28)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한국개혁신학논문집」 제2집(1997), 234.

보증인의 위치를 취하셔서 그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다.²⁹⁾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치심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즉 믿음이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받는 것이며,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주체이자 근원이 되는 것이다.

2. 믿음에 의한 구원

1) 믿음에 의한 칭의

칼빈은 전 인류가 아담에게서 범죄하였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롬2:12)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³⁰⁾ 즉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해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의로운 요소가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 인간의 선행을 공로에 위치시켜 칭의 교리를 오해하였다.”³¹⁾ 스콜라 신학자들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내세웠다. 그들의 논지에 의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행위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중생의 열매일 경우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³²⁾

29)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70.

30) 김우영, 「장로교와 감리교 무엇이 다른가?」(서울: 도서출판 프리젠티, 2001), 31.

31)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서 bona opera의 위치,” 「복음과신학」 1 (평택신학교, 1996), 7.

칼빈은 이런 이교 사상을 반박하고 구분 지을 필요성을 느껴 그의 모든 지성을 동원하여, 그리스도교의 이 기본적인 교리를 논리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힘썼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들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어의 올바른 의미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교리를 철저히 다루기에 앞서 먼저 그 개념의 의미를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³²⁾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되고 믿음으로 인해 용납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굳게 선다.

무죄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공정한 재판관 앞에 불려갔을 때, 그의 무죄가 사실대로 판결이 나면, 그는 재판관 앞에서 '정당함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죄인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증거 하시며 확인해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인정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날 때에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⁴⁾

다시 말해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처럼 나타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

32)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74.

33)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186.

34)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387.

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칭의와 피조물인 인간 속에 있는 죄는 서로 배타적인 면을 갖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믿음으로 온전해야 한다.³⁶⁾

칼빈은 이신 칭의 교리의 열쇠가 되는 성경구절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이라고 하였다. 이 성경구절은 종교개혁자들이 온전히 회복시킨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인으로 간주된다. 이 의가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은,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⁷⁾

그러므로, 칭의란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또한 칭의는 죄를 씻는 일(the remission of sins)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일(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임을 알아야 한다.³⁸⁾

2) 믿음에 의한 성화(1): 회개

칼빈은 ‘회개’라는 단어를 ‘회심’ 또는 ‘중생’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³⁹⁾ 칼빈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과로서 중생을 언급했고 회개 또

35) Ibid., 389.

36)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186.

37) Ibid., 188.

38)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52.

39) R. S. 웰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123.

한 믿음의 열매라고 했다.

칼빈이 회개의 근원을 믿음에 두는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가다듬어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⁴⁰⁾

그리고 칼빈이 말한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신자라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믿음으로 해야 한다. 칼빈은 지상에서의 완벽한 성화를 이룬 자는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라고 하여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유혹이 찾아오면 완벽하게 물리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정욕에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사실, 이런 유의 정욕들을 우리 속에서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 칭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인간에게 있다고 했다.⁴¹⁾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회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회개를 말할 때, 칼빈은 2가지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곧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이 그것이다.

죽임으로서의 회개 즉, 인간이 죄를 인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슬퍼하여 무서워하게 되고, 또한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는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죄인인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은 곧 자신이 멸망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낙담하여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통회(contrition)’라고 묘사한다.⁴²⁾ 이러한 죽임은 성경에서 율법 하의

40)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83.

41) Ibid., 93-94.

42)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81.

회개로 나타난다.

죄인이 율법을 들었을 때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떨며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기에 율법 하의 회개로 묘사되는 것이다.

살림으로 해석되는 회개는 죽음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며 회복하는 것으로 곧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⁴³⁾

성경은 또한 이러한 회개를 복음 하의 회개로 나타낸다.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고 일어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약과 공포심에 대한 우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⁴⁴⁾

따라서 칼빈의 말하는 회개는 2가지로 세분화된 것이며 믿음이 적용되는 회개는 죽음이 아닌 살림 즉, 복음 하의 회개상태에 있는 것이다.

3) 믿음에 의한 성화(2): 자기부정

칼빈은 칭의와 성화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발전적인 성화의 생활이다.⁴⁵⁾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의 생활이란 자기부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43) 이상훈, “칼빈의 율법개념과 개혁교회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집 (1994), 9.

44) 존 칼빈, 「기독교강요(I)」, 81.

45)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191.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⁴⁷⁾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다. 즉, 내 안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⁴⁸⁾

칼빈은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한다고 했다. 즉, 하나님께는 헌신함으로써 자기부정을 나타내는 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기 때문이다.⁴⁹⁾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인은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야망과 모든 인간적인 영광에의 열망”, 및 “모든 남모르는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⁵⁰⁾

위의 내용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시에 자기와 세상의 죄성을 거부한 후 풍성한 덕목들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에 관해서 언급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부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¹⁾

칼빈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부정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말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사

46) 존 칼빈, 「기독교 강요요약」, 281.

47)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03.

48) 존 칼빈, 「기독교강요(I)」, 93.

49)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03.

50) 존 칼빈, 「기독교 강요요약」, 282-283.

51) Ibid., 283.

랑하는 쪽으로 너무나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나머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⁵²⁾

따라서 자기부정을 통해서만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⁵³⁾ 또한 이웃에 대한 구제나 봉사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겉으로 사랑의 의무를 행했다고 해도 본질과는 벗어난 것이다.⁵⁴⁾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막스 베버가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 속에서 발견했던 이른바 “실천적 삼단논법”(Syllogismus Practicus)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외부적 표시로서 내부를 증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부의 경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내부를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의 증거를 의미한다.⁵⁵⁾ 즉 내면에 있는 믿음에 의한 사랑이 원인이 되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장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먼저 시행하셨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시는 것이다.”⁵⁶⁾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의 생애였듯이 신자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다.⁵⁷⁾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육체에 돌리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52)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07.

53) 존 칼빈, 「기독교 강요요약」, 284.

54)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12.

55) 이오갑, “칼빈의 경건해석과 현대적 의의,” 「말씀과 교회」 제6집 (2000), 136.

56)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18.

57) 존 칼빈, 「기독교 강요요약」, 285.

우리의 연약함이 눈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우리의 덕성을 높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 그런 우리의 덕성이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육체를 믿는 어리석고 헛된 믿음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는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교만을 내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마치 주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 능력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말이다.⁵⁸⁾

그래서 칼빈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바로 십자가는 신자의 덕성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뒤엎고, 위선의 껍데기를 여지없이 벗겨내며,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제거시키며, 또한 낮춤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며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는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고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⁵⁹⁾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확신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달을 때 자기부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십자가는 가르쳐 주는 것이다.

신자가 성화의 과정에서의 십자가의 경험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무감

58)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221.

59) Ibid.

각과 평정의 경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고통이다. 신약과 구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희랍철학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신이나 그 어떤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의 고통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⁶⁰⁾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인내와 마음과 몸으로의 순종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60) 존 칼빈, 「기독교 강요요약」, 287.

Ⅲ. 웨슬리의 믿음개념과 구원개념

1. 웨슬리의 구원개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

웨슬리의 구원론은 믿음을 항상 전제해놓고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칭의, 신생, 성화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정의하려면 그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와 순서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1)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100% 역사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웨슬리는 알미니안 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효력이 완성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⁶¹⁾

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인간 편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추호라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⁶²⁾ 그야말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61) 최영백, 「칼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우스의 행위론 이렇게 정의되어야 한다.」 (서울: 목회갱신연구원, 2002), 23.

62)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43.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⁶³⁾

2)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다. 웨슬리는 루터의 “믿음에 의한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였다.⁶⁴⁾

웨슬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잘못된 믿음 개념들을 살펴본 후에 웨슬리가 말한 믿음을 체계화 시켜보겠다.

첫째로, 이교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미래에 있을 상과 벌에 대한 믿음이다.

둘째로, ‘마귀의 믿음’으로 이 당시 영국국교회의 신앙형태이다. 즉 이교도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하며, 이 하나님이 상 주실 만큼 은혜롭고 벌주실 만큼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즉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 이들은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말한다.

셋째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모든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 하나를 쫓아내지 못

63) Ibid., 345.

64) G.C. 셀,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23.

한다고 하였다.⁶⁵⁾

이 세 가지는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개념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분석하겠다.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 된다. 이 믿음은 고대나 현대의 이교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명백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믿음과도 완전히 구별된다.

즉 이 믿음은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것으로 냉랭하고 생명 없는 지적 동의가 아니다.⁶⁶⁾ 이 믿음은 마음의 변화된 상태(a disposition of the heart)를 말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다른 점은 주님의 죽음이 필요불가결성과 공로를 인정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⁶⁷⁾

바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총애의 대상이 되었다는 확신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즉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인신 그분에게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⁶⁸⁾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천사에 의하여 예고되었던 그 위대한 구원으로서 이름을 예수

65)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46-349.

66) 존 웨슬리, 「웨슬리 설교선집」,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공역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

67)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50.

68) Ibid., 351.

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하였다.

그의 모든 백성들, 즉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는 그들의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즉,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육신의 죄, 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69)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필수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웨슬리는 상세하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이다.

2.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

1) 선행하시는 은혜

웨슬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받아들인 루터와 칼빈의 개신교 전통을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강조한다.”70) 이렇게 원죄 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선행은혜(pre-venting grace 또는 prevenient grace)라고 하였다.71) 이것은 하나님

69) Ibid., 352.

70)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87.

없이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오셔서 역사 하시므로, 우리가 회미하게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가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⁷²⁾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어떤 누구도 일반적으로 ‘자연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에 그렇다. 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⁷³⁾

즉 웨슬리는 선행은총은 넓은 의미에서 “생태의 양심”이라고 했지만, 단순한 자연적 양심이 아니라 만인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믿음에서 반응하는 양심이다.⁷⁴⁾

그러나 웨슬리 신학의 해석자들에 따라서는 이 선행은혜를 마치도 인간 속에 회복된 항시적인 기능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어느 정도 회복된 양심, 이성, 자유의지, 종교성을 선행은혜라고 부른다. 그러나 선행은혜는 인간 속에서 이런 기능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의하여 위로부터 인간 영혼에 임하는 현상이다.⁷⁵⁾

이 은혜는 인간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일찍이 또는 비교적 늦게의 차이는 있고, 또 보다 더 많이 또는 보다 더 적은 차이는 있다.⁷⁶⁾ 하지만 회미하기는 하지만 반짝이는 빛이 만인을 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

71)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대전: 도서출판 복음,2002), 53.

72)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대전: 도서출판 복음,2002), 99.

73)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256-257.

74) 변선환, “웨슬리신학과 선교,” 「변선환전집」 4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8), 723.

75)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53-54.

7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256.

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 죄를 짓는 것이라 했다.⁷⁷⁾

하지만 웨슬리는 양심의 현상이라 하는 이 ‘선행하시는 은혜’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양심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며 복음에 대하여 완악하여 질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⁷⁸⁾

2) 회개시키시는 은혜

선행의 은혜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어 주신 양심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며, 그에 대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믿기 전의 회개라고 불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서 칭의 받고 구원받는데 바로 앞서는 과정이다.⁷⁹⁾

그래서 선행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알게 하시고,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원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분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영별을 두려워하여 벗어나고자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77)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257.

78)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1.

79) 김진두, 「우리의 교리」(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106.

그러므로,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란 설교를 통해서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은혜 위의 은혜인 것이다’라고 피력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⁸⁰⁾

3) 믿음에 의한 칭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의하여 회개로 인도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와 같은 말씀에 기대를 건다.

그래서 웨슬리에 의하면, 회개로 인도된 사람은 믿음 받기를 사모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칭의와 증생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하시는 은혜”인 것이다.⁸¹⁾

웨슬리가 말한 칭의론 전체의 일반적 토대는, 첫째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총애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새 언약(a new covenant)을 세우시고 세상과 화해했다. 이 새 언약의 조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이다.⁸²⁾

80)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45.

81)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3.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뜻의 칭의의 의미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서 성경적 견해는 용서라고 한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바 [인간의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진노로 누그러뜨리신 일(propitiation) 때문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그가 당해야 마땅한 고통을 가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⁸³⁾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의 부류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 경건치 않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은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그들은 용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용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죄인들 뿐이다.⁸⁴⁾ 따라서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조건임을 알 수 있다.⁸⁵⁾

그런데, 성공회나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기 전에 먼저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즉 거룩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받는다 하면, 그것도 죄인이라는 관념 하에 용서받는다 하면, 그는 성자가 아니요, 죄인인 것이다. 결국 카톨릭이 말하는 칭의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칭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칭의에 대한 오해임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면, 그 [칭의 받는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니고

82)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19.

83) Ibid., 321-323.

84) Ibid., 325.

85) 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23.

불경건한 자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⁸⁶⁾ 거룩해야 칭의 받는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값싸게 만드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위에 결론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선행도 칭의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칭의를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신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 약속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하며 얻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필수적인 조건이다.⁸⁷⁾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2:8) 라는 말씀은 인간의 행위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즉,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⁸⁸⁾

4) 믿음에 의한 신생

신생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의 삶이 새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듯이 믿음으로 새로 태어남을 입는다.

칭의와 신생은 서로 간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과의 순서에 있

8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25-326.

87) Ibid., 335.

88)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3-104.

어서는 칭의가 신생 앞에 온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⁸⁹⁾

그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자명한 자각 증세를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사람 안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는 우리의 이해력의 눈(the eyes of our understanding)을 열어주시며 또한 빛을 비추시는 것이다.⁹⁰⁾

따라서 신생은 하나님이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죄의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이다.⁹¹⁾ 바로 부패된 본성은 거듭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생은,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창조될 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즉 ‘의와 진정한 거룩 안에서’ ‘새로워질 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하고, 교만이 겸손으로, 혈기가 온유함으로, 증오, 시기, 악의가 모든 인간에 대한 진실하고 부드러운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에 의하여 영혼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즉, ‘지상적이고 육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이다.⁹²⁾

이렇게 칭의를 통하여 동시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⁹³⁾

89)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375-376.

90) Ibid., 152.

91) Ibid., 386.

92) Ibid., 386-387.

93)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216.

(1) 믿음이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의 기본 바탕으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인생의 온갖 환난과 곤고를 이기는 평안으로 나타난다.

(2) 소망이다. 소망은 예수 재림 시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과 성령을 기다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3)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⁹⁴⁾ 이렇게 그 중심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동적으로 운동하는 상태가 되는데 서로 관련성이 있다.

믿음으로 칭의 받고 중생한 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5) 믿음에 의한 성화

웨슬리는 중생 시 사실상 성화가 시작된다고 본다. 초기의 성화는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과 함께 성화가 시작되고, 지속적인 중생한 자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칭의와 중생은 성화의 입구에 해당된다.⁹⁵⁾

94) Ibid., 217-219.

95)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5.

웨슬리는 칭의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 또한 믿음으로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추구하는 성화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라고 했다. 96) 이렇게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성화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97)

그렇다고 웨슬리가 선행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들, 즉 자비의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경건의 행위들도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98)

바로 믿음에서 선행이 나온다는 것을 웨슬리는 강조했다. 분명 사랑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원인이고 사랑의 행위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랑은 신인협조적인 행동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함께 성화를 이뤄나간다는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99) 왜냐하면 성화의 존재는 인간의 행위의 공로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00)

또한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는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칭의와 중생을 통해 믿음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해 민감하여서 회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성화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다.

이처럼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반해 몰더를 중심으로 하는 모라비안 교도가 런던에

9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226.

97) Ibid., 226.

98) Ibid., 228.

99)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09.

100) 송성진, “존 웨슬리의 구원론: 김홍기 교수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재고,” 「신학과 세계」 48 (2003), 187.

와서 신비적인 학설을 소개하며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에 아주 완전히 성화된다는 주장하였다. 101)

그래서 믿는 자의 회개라는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는 왜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회개를 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웨슬리에 의하면 최초의 회개와 믿음이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들어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가 계속 은혜 안에 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102)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유 때문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죄는 지배(reign)하지는 않지만, 남아 있다(remain).103) 이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 회개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상상하는 그 순간 여전히 교만(pride)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의지(self-will)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에 세상에 대한 사랑도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총애의 대상인 것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심을 알면서도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는 이생의 자랑'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갖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 그것이 죄책(guiltiness)과 완전한 무력감(utter helplessness)이다.

죄책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없었다면, 분명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마음이다. 즉, 그 처벌이 속죄의 피

101)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1984), 183.

102)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483.

103) Ibid., 484.

로 인하여 여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동안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무력감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여전히 선을 행하거나 악에 저항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에 저항하는 힘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죄와 내적 죄를 모두 저항하여 정복할지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믿는자의 적들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다.¹⁰⁴⁾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통해 여전히 회개가 뒤따르는 것이며 또한 이것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6) 믿음에 인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는 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pure love)이요 완전한 사랑(perfect love)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 순수한 의도, 순수한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든 기회에 강조하였다.¹⁰⁵⁾ 그러면, 이 완전을 지상에서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웨슬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된 자들로서 신생에 뒤따르는 체험이라고 했다.¹⁰⁶⁾

따라서 웨슬리는 “완전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먼저 칭의와 중생을 받

104) Ibid., 501.

105) Ibid., 205.

106) 찰스 W.카터 「현대 웨슬리 신학I」, 김영선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015.

아야 하고, 칭의와 중생을 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원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⁰⁷⁾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한 자에게 완전을 주시기 위해서 내적 죄로 번민하게 한다. 중생한 순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영혼에 충만하여서 얼마정도는 평화스럽게 지낸다. 그러다가 그들의 내적 죄, 즉 그들을 가장 손쉽게 죄짓도록 했던 화내는 것이나 욕망 등이 다시 공격하며, 넘어트리려고 한다. 그럴 때 그들은 끝까지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으려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착각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어느 때는 마귀와 더불어 이성적으로 따지게 되어 하루 종일 비통한 심경으로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조만간에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에게 증거하게 하신다. 그 때 그들은 마치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가슴의 바닥에 숨어 있었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교만과 자기의지와 지옥의 심연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상속자다’라는 증거를 그들 자신 가운데 갖고 있다. 이때 그들은 ‘의와 진정한 거룩’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싶은 갈증을 느낀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열망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a single eye)을 주시며,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¹⁰⁸⁾

107) 이선희,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 소고」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5), 34.

108)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 없는 석명」, 이선희 역 (도서출판 복음, 2004), 82-83.

여기서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이 믿음이며, 깨끗한 마음이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이 때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완전하게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것을 두 번째 변화라 한다.

IV.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 비교

1. 믿음개념의 비교

1) 믿음의 정의 비교

칼빈과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확신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칼빈과 웨슬리는 잘못된 믿음개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믿음을 정의했다.

먼저 칼빈을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지식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즉 결코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든든한 확신이 믿음임을 논했다.

따라서 신자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 많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신해야 하며 이것이 믿음임을 설명했다.

웨슬리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그 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믿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며, 총애의 대상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

게 된다.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총애의 대상이 되었다는 확신과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다.

2) 믿음의 근원 비교

칼빈과 웨슬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정신이나 판단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반대했다.

칼빈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즉 성령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며,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더욱 강한 확신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웨슬리는 성령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인간의 영혼에 빛을 비추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게 된다고 논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게 된다고 증거 했다.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기능에 대한 이해 비교

1) 회개에 나타나는 믿음개념 비교

칼빈과 웨슬리가 말한 회개는 구분 지어서 논할 필요성이 있다.

칼빈의 회개는 항상 믿음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회개보다 믿음이 선행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의 전에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철저히 회개한다고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 역시 인간 편에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다. 회개는 ‘지, 정, 의’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회개 의지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회개는 지적 수준에서 정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완숙한 회개는 의지적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결단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사랑, 성결, 순결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¹⁰⁹⁾

웨슬리는 성령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의 영혼에 빛을 비추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어서 회개한다고 하였다. 웨슬리도 자기인식이 있는 후에 회개를 말하였고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빈과 웨슬리의 일치점은 전적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먼저

109)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오산: 한국신학대학출판부,1984), 70.

다가오심으로 자기인식을 하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따라서 표현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는 은혜는 같음을 알 수 있다.

2) 칭의에 나타나는 믿음개념 비교

칼빈과 웨슬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하였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행위를 포함시키는 주장과 칭의 받기 전에 성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열매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을 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라 하였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담의 죄가 전가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죄 씻음을 받게 하신다.

웨슬리의 칭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흠 없이 완벽해서 의롭다 하심도 아니고,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몰라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주의 자녀를 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빈과 웨슬리가 말한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영혼이 변화되어 그 열매로써 선행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영혼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3) 성화에 나타나는 믿음개념 비교

칼빈과 웨슬리는 성화에 있어서도 믿음은 항상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칭의 후에도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고 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칭의 전의 회개로 완전성화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반대하여 칭의 후에도 악한본성이 인간에게 있기에 악한 영의 유혹을 받기에 일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칼빈은 성화 또한 믿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선행을 한 근원이 될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칼빈은 말했다.¹¹⁰⁾ 따라서 성화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¹¹¹⁾

그러므로 칼빈의 성화론을 하나의 선행운동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을 할 수 없을뿐더러 성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화의 생활을 하게 하는데, 칼빈은 성화의 생활이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부정의 삶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야망과 모든 인간적인 영광에의 열망”, 및 “모든 남 모르는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믿음에 의한 자기부정이 있어야 하나님과 이웃을

1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중)」, 308.

111)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23.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웨슬리도 믿음이 성화의 조건으로서 믿음 없이는 성화될 수 없음을 말했다.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행위도 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의 열매임을 말하였다.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임을 말한 것이다.

성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칭의 받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세상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질투 분개심 등이 생기게 된다. 이런 현실에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즉 칭의 후에도 지속적인 회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과 웨슬리는 칭의 후에 성화의 과정을 걷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수조건이며, 믿음 없이는 성화란 있을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렇다고 선행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임을 밝혔다.

또한 칭의 후에도,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기질로 인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회개케 된다고 하였다. 이 때의 회개 또한 믿음으로 하는 회개임을 공통적으로 표현하였다.

V. 결 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성으로 인해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계획을 이루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칼빈과 웨슬리의 믿음개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성령이다. 인간은 이 믿음으로 칭의 받고 중생하며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 즉 믿음도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인간의 공로나 지적 동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류가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칭의 받고 중생되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양 착각하며 살게 된다.

이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했던 믿음을 바로 전해야 할 것이다.

칼빈과 웨슬리는 그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전하기 위해 애썼던 인물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했음을 칼빈의 텍스트나 웨슬리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믿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개신교 안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믿음

의 의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선한 열매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원인이 믿음이면 행위는 결과이다. 이것이 칼빈과 웨슬리가 추구한 산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계속적으로 개신교를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산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열매로 인해 개신교를 성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일차문헌

(1) John Calvin

Calvin, John. 「기독교 강요(중)」. 원광연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_____. 「한 · 영기독교강요(제3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_____. 「기독교강요(I)」.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_____. 「기독교 강요(초판)」. 양낙홍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2) John Wesley

Wesley, John. 「존 웨슬리 설교선집(I)」. 이선희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_____. 「웨슬리 설교선집1」. 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공역. 대한 기독교서회. 2006.

_____.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 없는 석명」. 이선희 역. 도서출판 복음, 2004.

2. 이차문헌

(1) 국내서적

-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우영. 「장로교와 감리교 무엇이 다른가?」. 서울: 도서출판 프리젵트, 2001.
- 김진두. 「우리의 교리」.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5.
- 김흥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신내리.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_____. 「웨슬리 신학의 탐구」.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_____.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 소고」.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5.
- 이형기. 「기독교 강요요약」.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6.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오산: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 최영백. 「칼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우스의 행위론 이렇게 정의되어야 한다.」. 서울: 목회갱신연구원, 2002.
-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2) 번역서적

셀, G. C.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웰레스, R. S.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카터, 찰스 W. 외. 「현대 웨슬리 신학I」. 김영선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 일반논문

변선환. “웨슬리신학과 선교”. 「변선환전집」 4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8.

송성진. “존 웨슬리의 구원론: 김홍기 교수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재고”. 「신학과 세계」 48, 2003.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서 bona opera의 위치”. 「복음과 신학」 1집. 평택신학교, 1996.

이상훈. “칼빈의 율법개념과 개혁교회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집, 1994.

이승구. “칼빈의 신앙 이해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학연구」. 7집, 2000.

이양호. “칼빈, 성경과 하나님나라”. 「강근환교수은퇴기념논문집」. 한들, 2000.

이오갑. “칼빈의 경건 해석과 현대적 의의”. 「말씀과 교회」, 1999.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한국개혁신학논문집」. 제2집, 1997.

